

가정의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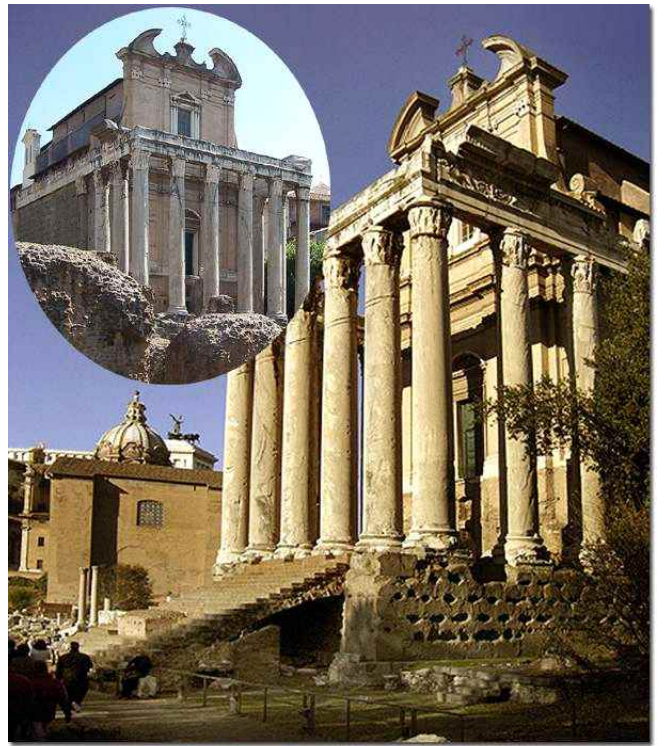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 AD 193-211)의 금화 주후 202년에 주조되었다. 전면에 월계관을 쓰고 갑옷 차림을 한 셉티미우스 세베루스를 둘러싸 세베루스 피우스 아우구스투스 대신만 호만 집정관 3회(SEVER P AVG P M TR P X COS III)라고 새겼다. 뒷면 중앙에 부인 줄리아 돤나(Julia Domna)를 왼쪽에 월계관을 쓴 카라칼라(caracalla)를 오른쪽에 게타(Geta)를 둘러싸 행복 시대(FELICITAS SAECVLI)라고 새겨 홍보하였다. 최고 권력자가 선포한 "행복시대" 라면 사실이였을까? 가문의 달이다. '가정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숙고해 봤으면 좋겠다.

카라칼라는 AD 198년부터 211년까지 아버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했다. 황제에 오를 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다. 하지만 1살 터울의 동생 게타와의 경쟁이 심했는데 AD 211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브리타니아 원정 중 잉글랜드 요크지방에서 죽고 게타가 1인자에 오르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아버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죽은 지 1년만인 212년 2월에 카라칼라는 게타를 어머니 줄리아 돤나가 보는 앞에서 살해하고 단독 황제에 올랐다. (가족을 그린 프레스코에서 게타의 얼굴이 지워져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때 카라칼라는 안토니누스 칙령을 발표해 모든 속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온갖 희생을 무릅쓰며 시민권을 얻고자했던 속주민들이 사라짐으로써,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로부터, 좀 더 정확히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등장하는 포학제(暴虐帝) 코모두스(180-192)때로 부터 로마는 크게 기울기 시작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최고 권력자의 품 나는 포플리움이 제국을 사망에 이르게 한 독약이 된 반면, 오랜 기간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교에게는 승기를 잡는 보약이 되었다.



2017년 독일에서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된 제 2대 로마황제 카라칼라의 안토니누스 칙령 파피루스 사본(AD 212) (caracalla, Edict of constitutio Antoniniana, 소장: Justus Liebig university Giessen 대학도서관) 카라칼라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베루스 안토니누스(AD 186-217 제위) 황제의 별명으로서 켈트족의 전통 모자를 뜻한다. 이 칙령으로 인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개 대륙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단일한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시민권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로마제국에서 그리스도교가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산 로렌초 성당(San Lorenzo in Miranda) 포로 로마노(Forum Romanum)에 있으며, 본래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nus Pius, 86-161)와 파우스티나(Faustina) 황제 부부를 위한 신전이었으나 주후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로 사용되었다. 그리스도가 카이사르를 굴복시켰음을 보여준 유적이다.



콘스탄틴 9세 모노마코스(콘스탄티노플, 1042-1055) 전면에 복음서를 안고 계신 그리스도를 뒷면에 공기와 보주(globus cruciger, 십자가를 세운 구형체)를 들고 있는 콘스탄틴 모노마코스(constantine IX Monomachus, AD 1000-1055)를 새겼다.